

강정호 3호 홈런 작렬 멀티히트 활약

3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타율 0.333로 '경춘' 대타 출전 이대호는 침묵



강정호는 12일(한국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3루수 겸 6번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시즌 3호 홈런을 포함해 멀티히트로 선전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는 대타로 출전해 1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강정호는 12일(한국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3루수 겸 6번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강정호의 타율은 종전 0.250(12타수 3안타)에서 0.333(15타수 5안타)가 됐다

2회초 첫 타석에서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강정호는 4회에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지만 후속 타선의 불발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팀이 2-4로 뒤진 7회초 세 번째 타석, 상대 선발 알프레도 사이먼을 상대로 노볼-2 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태에서 3구째 76마일(122.3km) 커브를 공략해 좌월 홈런으로 연결했다.

지난 7일 부상 복귀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때려낸 이후 또 다시 터진 아니다 4-4 동점인 9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강정호는 로스 올렌도프와 4구 승부 끝에 내야 안타를 때렸다.

이어 나선 선 로드리게즈의 희생번트와 조디 머서의 1타점 적시타로 역전 득점에 성공했다.

피츠버그는 이날 신시내티에 5-4 역전승

을 거뒀다. 이대호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에서 벌어진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대타로 출전해 1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3경기 연속 안타를 뽑아냈던 이대호는 플래툰 시스템에 막혀 이날 선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5-5로 팽팽히 맞선 연장 10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애덤 린드 타석이 돌아오자 시애틀은 이대호를 대타로 내세웠다. 이대호가 타석에 들어서자 탬파베이도 스트리브 켈츠로 마운드를 교체했다.

이대호는 볼카운트 1B2S에서 켈츠의 4구째 시속 94마일(약 151km)짜리 직구에 헛손질을 해 삼진을 당했다.

이대호의 시즌 타율은 0.283에서 0.277(47

타수 13안타)로 떨어졌다. 시애틀은 연장 11회 선두타자로 나선 크리스 아리아네타가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끝내기 홈런을 작렬해 6-5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3연승을 달린 시애틀은 21승째(13패)를 수확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질주했다.

/김민근기자



우석대 태권도학과, 협회장기 금·은·동메달 획득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가 제46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겸 2017년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에서 금, 은, 동메달을 모두 휩쓸며 최강의 면모를 증명했다.

전국 29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우석대는 여자대학부에 출전한 박영지(3학년)와 이승민(2학년)이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데 이어 남자대학부에 출전한 주지원(3학년)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최상진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장은 "박영지는 생애 첫 금메달을 획득하는 기쁨을 누렸고 이승민은 경기 중 무릎부상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을 앞세워 승리를 거두는 투혼을 보였다"며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 최선의 경기를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골든스테이트, 서부컨퍼런스 결승 진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클레이 톰슨과 부상에서 돌아온 스테판 커리의 맹활약에 힘입어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에 승리를 거두고 서부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다.

토론토 랩터스는 마이애미 히트를 누르고 결승 진출에 1승만 남겨졌다.

골든스테이트는 12일(한국시각) 미국 오를랜드 오라클 아레나에서 열린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서부컨퍼런스 준결승(7전4선승제) 5차전에서 125-121로 승리했다. 2쿼터까지 5점차로 끌려가다가 역전승을 거둔 골든스테이트는 상대전적 4승1패를 기록해 서부컨퍼런스 결승 진출을 달성했다. 골든스테이트는 샌안토니오 스프링스-올라호마시티 선더전적의 승자와 결승에서 맞붙는다.

동부컨퍼런스에서는 토론토 랩터스가 마이애미 히트를 99-91로 누르고 상대전적 3승2패를 만들어 결승까지 1승을 남겨뒀다. 이미 결승에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선착해 있다. 이날 경기에선 데마르 데로잔과 카일 로우리가 각각 34득점 4리바운드, 25득점 10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김민근 기자

KBO 리그 오늘 200만 관중 돌파 예상

올 시즌 800만 관중을 목표로 하는 2016 타이타닉 KBO 리그가 20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뒀다.

12일 KBO에 따르면 정규시즌의 22%인 158경기를 소화한 11일 현재 총 관중은 192만3069명(평균 1만2171명)이다. 200만 관중까지는 7만6831명이 모자란다.

KBO는 오늘 경기에서 200만 관중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200만 관중을 돌파하면 경기 수로는 188경기만이다. 지난해 189경기보다는 21경기나 빠르다.

또 역대 최소경기 200만 관중 돌파 순위에서는 6번째에 해당된다.

올 시즌 KBO 리그의 관중 수는 지난 달 1일 개막 이후 추운 날씨로 인해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5월 들어 봄 날씨와 본격적인 순위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김민근기자

전북체육회, 초·중·고 체육시설개방

국비 5억 6,000여만 원 확보 작년 8곳이어서 올해 7곳 추가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2016년도 국비를 5억 6,000여만 원을 확보해 초·중·고 체육시설개방을 작년 8곳에 이어 7곳을 추가 선정 할 수 있게 됐다.

지역체육 균형발전과 체육활동에 열악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체육시설개방은 작년도 개방된 8곳에 익산시 2곳(북일초, 함일고), 남원시 1곳(중앙초), 완주군 1곳(이성초), 진안군 1곳(진안초), 순창군 1곳(순창초), 고창군 1곳(고창중)을 포함 총 15학교에 3,700여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단순 개방만이 아니라 전문 관리

매니저를 상근 배치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시설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예정이다. 또한 전문 관리매니저들은 지역민들과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시간은 평일은 방과 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 80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은 12시간 등 월 최소 72시간을 보장 할 예정이다.

또한 도 체육회는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안정성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전라북도체육회 지원육성처 류창욱 사무처장은 "체육시설 부족으로 인해 체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따르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기금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행사부 시행 정부3.0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2015년도 공공기관 정부3.0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공단은 12월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전체 6위, 기금관리형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해 정부3.0 우수 공공기관 중 29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민 의견을 적극 경청해 서비스의 불편함을 발굴하고 이를 신속하게 개선했다. 저소득·노령층 등의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타 공공기관과의 협업으로 윈스톱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체육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활용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정부3.0 실현에 앞장섰다.

공단은 대표적인 정부3.0 우수 사례로 협업에 기반한 윈스톱 국민체육100 서비스를 꼽았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